

## 남 북 협 력 동 향

(2005.7.1 ~ 9.30)

### ■ 수출입은행, ‘북한개발과 국제협력’ 국제심포지엄 개최(7.6)

- 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공동으로 ‘북한개발과 국제협력’이라는 주제로 이틀간(7.6~7, 신라호텔) 국제심포지엄을 개최
- 요하네스 린 전 세계은행 부총재 및 국내외 북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남북경협 확대방안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

### 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(7.12)

- 경제협력추진위원회(경추위) 제10차 회의가 7.9~12(3박 4일) 서울에서 개최(통일부)
- 전체회의(2회), 위원장 접촉(3회) 등을 통해 ① 소비재사업과 자원개발 연계 ②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설치 ③ 남북수산물무협의회 구성 등 12개항 타결

### ■ NSC, 핵포기시 대북 200만kW 제공 확정(7.13)

- 정부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(대통령 주재)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,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종료하고, 그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기로 확정(통일부)
- 전력사업 비용은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추가비용 24억 달러(약 2.5조 원)로 충당
- 예상사업비용
  - 시설비용: 송전망 가설(5,000억원), 변환설비(1조원)
  - 유지비용: 연간 1조원

- 7월말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핵포기가 합의되면, 송전시설 건설에 대한 회담을 열고, 3년 이내 완공 2008년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
- 북한의 실제수요는 400만~450만kW이나 현재 생산 수준은 200만kW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.
- 동 시설을 완공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※ 200만kW는 제주도가 사용하는 전력의 4배 수준

### ■ 남북교역, 상반기 전년대비 39.5% 증가

- 금년 1~6월중 남북교역규모는 4억 5,412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.5% 증가(통일부)
- 거래비중은 상업적거래가 3억 580만 달러(67.3%) 비상업적거래가 1억 4,831만 달러(32.7%)
- 반출은 3억 1,17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7.6% 증가, 반입은 1억 4,242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.6% 증가

### ■ 정부, 대북 쌀 차관 1억 5,500만 달러 의결(7.19)

- 정부는 19일 대북 쌀 50만 톤에 대한 지원으로 1억 5,500만 달러 이내의 식량차관과 부대경비 32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(통일부)
-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, 이자율 연 1%
- 톤당 미화 300달러로 계산(국내산 40만 톤, 외국산 10만 톤)

### ■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(7.27)

- 남북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(7.25~27)하고 6개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(연합)
 

① 서해상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	② 서해상 불법어선 통제 협력
③ 가공·유통 등 협력사업으로 진행	④ 수산분야 기술교류
⑤ 제3국 어장 공동 진출	⑥ 실무접촉 날짜·장소 문서로 확정
- 서해상 공동어로는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(8월, 백두산)을 통해 협의한 뒤 확정기로 합의

## ■ 남북,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개최(7.30)

- 남북은 개성에서 제5차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를 개최(7.28~30)하고 합의문을 발표(통일부)
- 10월 하순경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
-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(경의선: 8.18~20, 동해선: 8.23~25)
- 철도연결공사 완료를 위한 자재 추가지원
- 철도 및 도로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위원 명단교환 등

## ■ 북중교역, 상반기 중 대폭 증가 추세(8.3)

- 금년 상반기 중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742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.3% 증가(KOTRA)
-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30백만 달러, 수입은 51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33.8%, 48.0% 증가
-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, 광물성 연료·에너지, 철강, 의류 등이며,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·에너지, 육류, 곡물, 기계류, 플라스틱 제품, 전기기기 등
- 특히, 북한의 곡물 수입은 34백만 달러로 전년(6백만 달러)보다 481% 급증

## ■ 남북간 9개 경험합의서 발효(8.5)

- 남과 북은 '02년 12월부터 '04년 5월까지 체결한 9개의 경험합의서를 각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5일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
- 이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('05.7)에서 동 합의서들을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임(통일부)
- 9개 경험합의서
  - ①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2.12.6)
  - ②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('02.12.8)
  - 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('02.12.8)
  - ④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('02.12.8)

- 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('03.10.12)
- 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('04.1.29)
- ⑦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('04.4.13)
- ⑧ 남북해운합의서('04.5.28)
- ⑨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('04.5.28)

#### ■ 남북, 해운실무접촉 개최 및 공동보도문 합의(8.10)

- 남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문산에서 개최(8.8~10),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, '남북해운 부속합의서의 수정·보충합의서'를 체결
  -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 허용(8.15)
  -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(8.11 시험통신, 8.12 운용개시)
  - 선박 통신설비를 이용한 직접통신 보장(금년중) 등 (통일부)

#### ■ 산업자원부, 「개성공단 상담지원센터」 설치(8.10)

- 산자부는 8월 10일 「개성공단 상담지원센터」를 섬유산업연합회에 설치(산자부)
  - 동 센터(8명 근무)는 섬유업종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계획 수립 및 전략물자 사전판정, 입주업체 애로사항 상담 등 입주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

#### ■ 남북농업협력위 제1차 전체회의 개최(8.20)

- 남북은 18~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(농협위)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고 7개 사항에 대해 합의(통일부)
  - 2006년부터 육묘시설, 농기자재,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지원(기술자 방북) 등 협동농장 협력사업
  -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·보관·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지원
  - 유전자원 교환,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, 생물농약 개발, 병해충 관리체계 형성 등
  - 축산, 과수, 채소, 잡곡, 특용작물 등 분야에서 협력
  - 북한의 동·서부지역에 각 1개씩 양묘장 조성 등

## ■ 평양 비즈니스스쿨, 시장경제 교육(8.23)

- 평양 비즈니스스쿨은 스위스 정부 산하기구인 개발기업청(DCA)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북한 경제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 실시(연합)
- 북한 정부, 무역회사 등의 40~50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, 인적자원개발, 전자상거래 등을 교육
- 평양 비즈니스스쿨은 9월에 첫 졸업생 30명을 배출할 계획

## ■ 개성공단 입주기업 부동산 등록 시작(8.24)

-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8.9일부터 한국토지공사, 현대아산 등 개발업자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의 부동산 등록을 실시한다고 발표(개성공단사업지원단)
- 입주기업들이 부동산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, 임대, 저당 설정이 가능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이 가능
- 부동산 등록 신청은 토지이용권, 건물소유권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며, 관리위원회 개성본사에서 접수중임.
- \* 이에 앞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토지공사, 현대아산,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에게 7.19일 부동산 등록에 대한 안내를 실시

## ■ 북한, 금강산관광 일 600명으로 축소 통보(8.29)

- 북한은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사퇴를 이유로 9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 규모를 2박3일 위주로 1일 6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현대아산에 통보(연합)
- 현재 금강산관광은 당일, 1박2일, 2박3일 코스(1일 1,000~1,200명 규모)로, 10월까지 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
- 현대의 개성관광, 백두산관광 등 대북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
- 개성 시범관광, 9월 중 백두산 시범관광 예정

## ■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식 개최(8.31)

-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이 8월 31일 금강산 면회소 부지에서 개최 (적십자사)

- 대한적십자사 총재(한완상),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(장재언), 이산가족 550명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
- 2002년 9월 4차 적십자회담에서 건설 합의, 1만 5천 평 부지에 연면적 6천 평(12층, 1천 명 수용) 규모로 2007년 4월 완공예정

## ■ 북한, 쌀 국영배급소에 의한 독점 매매(8.31~9.1)

- 북한은 19일 내각 지시로 장마당에서 쌀 판매를 금지시키고 10월 1일부터 국영배급소를 통해 쌀을 독점 매매할 계획(연합, 조선, 동아 등)
- 쌀 매매가격, 판매방식, 1인당 판매량, 위반시 처벌내용 등은 미공개
  - \* 쌀의 국정가격은 1kg당 44원, 1인당 국영배급소 쌀 판매량(1일)은 과거 350g에서 200g으로 감소 후 올 7월 250g까지 회복
- 동 조치로, 쌀 1kg 가격이 6월말 평균 1,100원(원화 500원 정도)에서 8월말 700원대로, 옥수수 1kg 가격은 500원대에서 200원대로 하락
- 국가배급망 정상화는 북한의 경제관리능력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, 물가관리나 당창건 60주년 등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
- 2002년 7·1경제관리개선조치 후 급등한 식량가격 안정화 필요성 제기
- 국가에 의한 식량 독점 매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 배급재원 확보, 만성적인 식량부족(매년 200만 톤 정도)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

## ■ 북한, 금년 대외무역 30억 달러 돌파 전망(9.8)

- 북한과 중국 등 주요 3개 교역국간 교역규모가 25.5% 증가하는 등 금년 대외무역규모가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(KOTRA·연합)
- 대중 교역은 전년 상반기 대비 43.3% 증가,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연탄 등 광물성 연료의 수출이 212.8%로 큰 폭으로 증가
- 남북교역을 포함하는 경우, 북한의 교역규모는 40억 달러 초과 예상
- 올 상반기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설비 및 기계장비의 반출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39.5% 증가
  - \* '04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: 2,857백만 달러(남북교역 포함: 3,554백만 달러)

## ■ 북한, WFP 식량지원 거부(9.9)

- 북한은 인도적 방식에 의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UN 등에 전달(연합, 조선)
- 올해부터 북한은 유엔통합지원절차에서 제외되었으나, 세계식량기구(WFP)로부터의 개별 지원은 지속되어 왔음
- 현재 WFP측은 잔류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, 북한은 금년 8월 WFP 평양사무소의 폐쇄와 모니터링 요원의 철수를 요구
  - \* 북한은 '04. 8. 유엔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지원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방식을 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하는 “유엔통합지원절차”의 탈퇴를 요청
  - \* 2005년 북한 식량지원 규모 : WFP(10만 톤), 한국(50만 톤), 중국(15만 톤)
- 한편, 북한은 인도적 방식에 의한 지원 보다는 식량자구가 가능한 개발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

## ■ 북한, 회령에 첫 국경시장 조성(9.14)

- 북한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북 회령에 최초로 외국인에도 개방되는 ‘국경시장’을 조성(The Daily NK)
- 국경시장은 오는 10월 개장 예정이며, 300개 정도의 판매대 설치 예정
- 북한 당국은 밀수와 보따리장사 등을 통해 유통되는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 제품을 국경시장에서 흡수하고, 세금도 징수할 예정
  - \* 국경시장 : 외국인도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며 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설시장

## ■ 북한, 중국 훈춘시에 라진항 개발·경영권 인도(9.15)

-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함경북도 원정시-라진항 구간 도로 건설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대가로,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라진항 개발·경영권 인도
- 북한은 중국 훈춘시에 라진항 부두의 50년간 단독사용권 및 경영권을 부여하고, 5~10 km<sup>2</sup>의 땅을 훈춘시 공업단지로 허가(흑룡강신문)

- 길림성 정부는 중국 교통부의 정식비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북한과 중국은 전문투자무역협정을 제정하는데 동의
  - 중국에서 수출한 제품이 북한을 거쳐 재차 중국에 수입될 경우, 통관우혜정책을 실시하고 중국내무역으로 간주 무역검사 면제
  - 동 사업이 시행되면 중국과 북한간의 물동량 흐름이 가속화되고, 사회간접투자 등의 경험확대와 동북3성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
- \* 중국 권하-북한 라선간 도로사업은 현재 두만강계발계획(TRADP)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나, 동 구간중 13.9km구간이 공사금액 부족 등으로 미포장된 상태
- \* 북한 중앙정부의 동 사업 기준은 미확인됨.

## ■ 미국 재무부, 북한의 자금세탁 확인(9.15)

- 미 재무부는 15일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'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'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달·유통해 온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(미국 재무부)
  - 미 재무부는 동 은행이 20여년간 북한 정부 및 기업들과 거래를 하며, 위조지폐 유통·마약대금 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도 지원했다고 발표
- 미 재무부는 동 은행을 미국 국내법인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"돈세탁 우선우려" 대상으로 지정하고,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직·간접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검토

## ■ 남북 장관급회담,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(9.16)

- 남북은 제16차 장관급 회담을 9.13~16일 평양에서 개최하고,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(통일부)
  -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노력,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
  - 11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, 올해내 2차례 화상상봉 실시
  - 대북투자 및 경험활성화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모색
  - 개성공단 2단계 개발,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협력사업을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(9.28 개최예정)에서 논의 등



## ■ 6자회담, 공동성명 형식의 6개항 합의문 발표(9.19)

- 남·북한,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6개국은 제4차 6자회담을 9.13~19일 북경에서 개최하고, 6개항의 공동성명(Joint Statement)에 합의(연합)
  -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목표
  -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상호 준수
  - 에너지,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
  -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
  - ‘공약 대 공약(commitment for commitment)’, ‘행동 대 행동(action for action)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 시행
  - 제5차 6자회담 개최일자는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
- \* 공동성명 :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(treaty)과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의장요약문(chairman summary), 의장성명(chairman statement), 공동보도문(joint press release)에 비해 정치적·도의적 구속력이 가장 높은 합의 문서

## ■ 통일부,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추산(9.22)

- 통일부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약 6조 5,000억~11조 원이 소요(9~13년)될 것으로 추산(통일부)
  - 중유제공 : 3년, 약 1,500억 원(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 전제)
  - 대북송전 : 송전시설 1조 7,000억 원, 송전비용 6~10년, 3조 9,000억~8조 원
  - 경수로 건설 : 200만kW 원전 건설, 7,000억~1조 원(5개국 균등분담 전제)
- 대북송전은 우리측이 부담할 계획이나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제공 분담규모는 추후 이행 협의과정에서 유관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
- 통일부는 소요비용 문제는 북핵폐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
- \* 대외신인도 1등급 상승시 경제효과는 투자유입 5억불, 순수출 5,400만 불 증가, 연평균 산업생산성증가율이 0.8% 증가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

## ■ 평양에 수입물자 교류시장 등장(9.25)

- 북한의 포탈사이트 '내나라(www.naenaro-dprk.com)'에서 북한은 중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양시 '보통강 공동교류시장'을 수입물자 교류시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(연합)
- 이 시장은 북한 무역성 산하 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와 태성국제 무역유한공사 등 중국 기업들이 공동 운영
- 지난 6월에 개설된 이 시장에서는 30여개 중국회사 제품들이 거래중

## ■ 미국내 북한 자산동결 3,170만 달러(9.26)

- 미국은 지난 6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의 조선광업무역회사(舊창광신용회사), 조선련봉총회사, 단천상업은행의 미국내 자산 동결
- 이들 기관은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제조, 조립 관련 물품의 수출혐의를 받고 있음.
-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액은 3,170만 달러로, 리비아, 쿠바, 이란에 이어 4위를 차지

## ■ 영국투자회사, 북한펀드 설립 추진(9.22)

- 런던 소재 투자펀드 회사인 앵글로 지노 캐피탈은 북한에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'조선개발투자펀드' 조성 계획을 추진(Kotra)
- 현재 영국 금융감독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, 홍콩, 베이징, 서울 등에서 '조선펀드'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

## ■ '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' 내달 개성에 개설(9.29)

-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10.25일 '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' 개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브리핑
- 경협사무소는 남측 16명, 북측 12명의 상주인원으로 구성·운영될 예정(통일부)
- \* 남측인원은 당국자 7명,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4명, 통신원 등 지원인력 5명으로 구성

- 개성에서 개최되는 개소식에서는 제11차 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’ 남북한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
- ‘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’는 남북간 직거래 알선, 중개 등 경제협력 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부기관

## ■ 북한, 남한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(9.29)

-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(민경협)과 남한의 한국산업단지공단(산단공)은 10.1일 평양에서 남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(연합)
- 남측 : 산단공, 기업, 유관기관 등에서 100여 명 참가
- 북측 : 민경협 및 남북경협 기업인 새별, 삼천리, 광명성 회사 등에서 20여명 참가
-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‘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’와 ‘북한의 투자환경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, 남북한 기업인들이 투자 상담을 할 예정
- 또한, 남한시찰단은 남북 합영회사인 ‘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’ 창업식에 참석한 후 평양인근의 산업시설을 둘러볼 계획